

속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소형 · 초정밀 광학부품분야서 ‘두각’

초정밀 광학부품 가공업체 (주)동인산업

1996년 설립(당시 동인정밀)된 동인산업(대표 · 이진태)은 10년 가까이 초정밀 광학부품 생산에만 주력하며 꾸준한 기술향상과 매출증대를 통해 알토란같은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설립당시 이진태 사장 혼자서 선반 하나 놓고 미약하게 첫출발을 했지만 현재 자동화기기 MCT 3대, CNC 3대, 밀링 4대, 선반 2대 등의 설비를 갖추었고, 지난 2003년 2월에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공장과 사무실을 신축, 설립하면서 초정밀 광학부품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첨단 광학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지금, 광학부품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옛날이나 또 앞으로나 완제품의 경쟁력은 완제품 생산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학기기분야는 초소형화 및 초정밀화 등 타산업에 비해 기술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광학부품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 안 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1996년 설립(당시 동인정밀)된 동인산업(대표 · 이진태)은 10년 가까이 초정밀 광학부품가공, 생산에만 주력하며 꾸준한 기술향상과 매출증대를 통해 알토란같은 회사를 이끌어오고 있다. 동인정밀로 설립당시 이진태 사장 혼자서 선반 하나 놓고 미약하게 첫출발을 했지만 현재 자동화기기 MCT 3대, CNC 3대, 밀링 4대, 선반 2대 등의 설비를 갖추었고, 지난 2003년 2월에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공장과 사무실을 신축, 설립하면서 초정밀 광학부품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



▶ 동인산업 사옥 전경. 2003년 2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공장과 사무실을 신축, 설립하면서 초정밀 광학부품 생산업체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됐다.



▶ 이진태 대표

10년 가까이 초정밀 광학부품가공에 주력, 탄탄하게 쌓아올린 '기술노하우'

동인산업은 현재 광학기기 및 광학의료기기의 주요 초정밀 부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부터 호흡을 맞춰온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 벤처기업 휴비츠의 제품개발 참여를 통해 제품의 부품을 다량 생산, 납품하고 있다. 현재 휴비츠의 검안기와 렌즈미터의 양산부품을 가공 납품하고 있고 옥습기의 개발부품을 가공 납품하고 있다. 레이시스에는 의료장비 및 기구부품 가공을 납품하고 있고 연구개발업 기구부품 등 단품 가공 협력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린광학에는 (쌀)검사장비 기구 경통을 양산하고 박물관 조명기구 경통과 각종 광학 지그 및 광학기구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이밖에 플러스텍에는 검사장비(LCD)라이트 종류 제작을, 아이비전에는 각종 광학 기구 제작을, HIST에는 검사장비(LCD용) 부품가공을 납품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인산업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부품가공을 의뢰하는 협력업체들이 다수 된다. 사업시작부터 근 10년을 지나오면서 특별한 위기 없이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이진태 사장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겸손함을 보이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불변의 법칙이 동인산업이라고 비껴가진 않았을 터. 천오진 차장은 동인산업의 장점에 대해 “결코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회사만의 기술노하우는 물론이고 협력업체와 초창기 제품개발부터 함께 참여하면서 쌓아올린 신뢰감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외에도 경영자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믿음감과 신뢰감을 심어주는 이진태 사장의 회사 운영 방침을 꼽을 수 있다. 회사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을 지나오며 한번 인연을 맺은 이상 이직률 없이 모두가 한 배를 타고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만의 강점이다.

이진태 사장은 “동인산업이 다른 회사와 달리 기술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의 이직률 없이 함께 가면서 기술 노하우를 꾸준히 갖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뢰감으로 뭉친 회사의 이미지와 기술노하우가 '큰 자랑'

동인산업에서 한달평균 가공 생산하는 품목은 200여 가지. 협력업체의 아이টে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협력업체중 휴비츠의 물량이 동인산업 전체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되는 가운데 자동굴절/각막곡률측정기 등을 비롯한 광학의료기기를 세계에 수출하는데 있어 동인산업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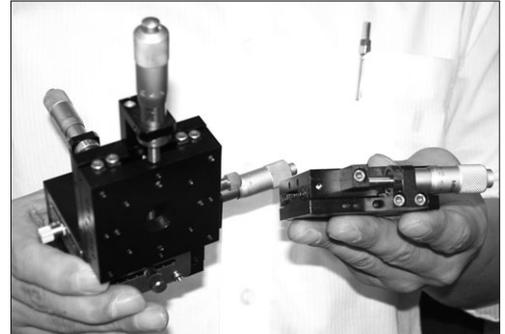
조를 하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이 크다.

동인산업은 이처럼 협력업체들이 생산하는 광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부품 등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응용과학과 광전자 정밀기기부품까지 사업 분야를 넓혀 초정밀 부품 가공업체로서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제까지 단순 부품가공업체에서 떠나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해서 창출하고 개발하여 제품화시키는 쪽으로도 역량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그 한 가지 예가 X-Y-Z 스테이지(stage)이다.

이진태 사장은 “지금껏 가공만 해오다 보니 전기·전자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발은 아직 시기상조라 보고 가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테이지나 광학기기 쪽에 들어가는 부품 위주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하나하나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의 경우 기존에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다 썼는데 문제는 제품을 받기까지 최소 한달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실 주문을 받아서 납기일까지 보통 일주일도 길다하는 초를 다루는 상황에서 한 달 이상씩 걸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 착안하여 동인산업에서는 가격대도 저렴하고 공차 100/1미리 오차 없이 맞춰나갈 수 있는 자사만의 X-Y-Z 스테이지(stage)를 주문제작 해주고 있다. 주변에서는 올해 경기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동인산업은 올해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했다. 물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가 저물려면 앞으로 두 달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2006년에 대한 핑크빛 목표수립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동인산업에서 주문제작하는 X-Y-Z 스테이지(stage)



▶생산현장. 설립당시 이진태 사장 혼자서 선반 하나 놓고 미약하게 첫출발을 했지만 현재 자동화기기 MCT 3대, CNC 3대, 밀링 4대, 선반 2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매달 200여가지에 달하는 부품을 가공·생산해 내고 있다.